

이런 때는 떠나지 마십시오

- 폴 앤더슨 / 미국 미네소타 Lutheran Renewal St. Paul 디렉터

목회자들은 상황이 나쁠 때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떠남이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싶다.

1.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한 친구 목사가 최근에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보다 두 배정도 규모가 큰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을 받았다. 그는 그 초빙을 수락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내는 강한 유보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 일로 인해 그들 부부는 몇 주 동안 갈등을 겪으며 결혼관계까지 위협받았다. 그는 결국 그 초빙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그의 아내도 안정을 되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확신을 주셨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 11:14).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 많은 모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지치거나 낙담했을 때.

낙심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종종 사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고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의 말이 더 강력하게 들릴 수 있다. 그 때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고난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섰으로써 당신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신 시기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사역이 거절되거나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떠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힘든 주일이 몇 주 계속된다고 해서 떠나는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쳐야만 할 경우도 있다. 엘리야는 도망중에 있을 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었다. 이것은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두려움과 실패의 감정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결정을 내리기 앞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일 때.

먼저 그 문제를 직면하라. 떠나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문제일 수도 있다. 결정적인 싸움에 직면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우리는 결코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저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고 맞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포도주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도서출판 두란노가 발간하며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전문 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10월호(통권 160호) 265쪽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